

테마칼럼

정병덕의 열정

이승정의 열정

빛고을에 살며

정병·문화·미술

‘국제화’ 단지 좋은 생각일 뿐인가?



안톤 솔츠

안타깝게도 나의 경험으로 비춰볼 때 ‘국제화’는 여러 상황에서 그저 말뿐으로 남으며 한국은 아직 국제화를 실현하는데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본다.

며칠 전 새로운 신용카드를 만들고자 했다. 최근에 이사를 하고 난 뒤라 다니던 은행이 집에서 멀어 마침 근처에 새로 문을 연 신한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신용카드도 만들 참여했다.

은행의 이런 방침은 좀처럼 설득력이 없다. 특히나 국제적인 은행처럼 광고를 하고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은행에서라면 말이다.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었다. 다른 은행들이 서로 좀 더 다르다고 해도 외국인에 대한 신용카드발급에 관해서는 별반 다르지 않았다.

왜냐 오래전 전문역할로 광주시의회의 광주시 국제화와 관련한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토론 중에 한 전남대 교수님이 말씀하길 “어느 날 솔츠교수도 광주시장이 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광주가 국제화하겠다는 것이겠지요”

세계를 둘러본다면 우리는 오스트리아 출생의 영화배우,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캘리포니아의 주지사가 된 경우도 볼 수 있고 일본의 뿌리를 둔 페루의 알베르토 후지모리 대통령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묻고 싶다. 이런 일들이 한국의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상상할 수 있는가? 유럽이나 미국에서 태어난 하얀 얼굴을 한 이방

인이 전라도도 도지사 될 수도 있겠는가? 아니면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거나 부모가 한국인이 아닌 사람이 국가의 고위 공무원이나 중요 직책을 맡을 수도 있다고 보는가?

솔직히 나조차도 이런 일이 한국에 곧 일어나리라고 상상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은 한국인이 갖고 있는 외국인의 이미지가 영여감이나 경우에 따라 재미있거나 특이한 구석이 있어 TV에 소개되는 정형화된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한국에서 거주하며 활동하는 외국인의 수와 외국인과의 결혼하는 한국인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의 추세라면 언젠가 한국인의 이들과는 다른 이가 중요한 위치에 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은 어쩌면 시간문제일지도 모른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뒤풀이되는 물류대란 근본 해결책 찾아야

화물연대가 결국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대한통운과 막판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11일부터 전국적으로 집단 운송거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지난 2002년 이후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올해도 물류대란의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국민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하다.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물류대란마저 일어난다면 우리 경제는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번 파업은 명분과 실리가 약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치솟는 기름값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던 지난해의 ‘생계형 파업’과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화물연대가 주장하고 있는 대한통운 계약 해지의 원적 복직, 노조인정 등이 과연 국가 기간망을 볼모로 파업에 돌입해야 할 만큼 시급한 현안인지 납득이 안 된다.

화물연대는 대다수 차주들의 권익 및 복지 향상과 거리가 있고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파업을 계속 밀고 갈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

지자체 공무원 특채 해도 너무한다

전남지역 일부 지자체들이 현행 공무원임용법상 제한적으로 시행토록 한 특별채용을 남발해 말썽을 빚고 있다. 일부 시·군의 경우 특별채용이 공채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K시의 경우 최근 2년 동안 104명의 신규 공무원 채용하면서 무려 60명을 특별채용으로 임용해 공채인원 44명을 크게 앞질렀다.

공무원의 국민의 세금에 받는다는 점에서 공공채용이 원칙이다. 이를 넘어선 공무원 특채는 조직 내 위화감 조성은 물론 전문성 결여로 인한 행정서비스의 저하를 야기한다.

無等鼓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는 뭘까? 혹은 자는 ‘블루마운틴이 가장 비싸다’고 하고 어떤 이는 ‘유일하게 미국 하와이에서 재배되는 코나가 더 비싸다’고 한다.

커피 루왁
커피 루왁은 천연 알코올이 포함된 야자 수액과 커피 열매를 먹고 산다. 커피 열매를 소화시키면서 단단한 껍질을 제거하고 아미노산의 쓴맛이 첨가돼 루왁 커피만의 나무향과 약간 스카이스미탄 맛이 만들어진다.



커피 루왁은 천연 알코올이 포함된 야자 수액과 커피 열매를 먹고 산다. 커피 열매를 소화시키면서 단단한 껍질을 제거하고 아미노산의 쓴맛이 첨가돼 루왁 커피만의 나무향과 약간 스카이스미탄 맛이 만들어진다.

생된다. 최근 한국에도 커피 루왁을 파는 곳이 생겼다. 커피 한잔에 2만5천 원이라는 데 그 명성만큼이나 손님이 물리는 모양이다.

한국인들은 1년에 평균 300잔의 커피를 마신다. 커피는 빠듯해진 지갑 사정에도 줄일 수 없는 필수재가 됐다.

한국에서 커피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관계 수단이다. ‘양춘리 커피’로 대변되는 다방커피 전성 시대에는 값의 부담이 그나마 덜했다.

커피 루왁은 그렇다스 처더라도 대량 생산되는 원두를 쓰는 테이크아웃점의 커피값이 왜 그렇게 비싼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다. /김일환 여론대처장 kih8@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전병덕
우리는 마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언제부터라고 정확하게 말할 순 없지만 세계가 인정하는 10대 향양 식품 가운데 하나인 마늘은 재배역사가 가장 오래된 작물 중 하나인 것은 분명 한 것 같다.

기고 정병해
‘광주청소년음악페스티벌’, 2009년에 제법 환하다. 어느 때 같으면 6시 30분 에야 겨우 일어나는 딸아이가 오늘부터 당번이라며 먼저 일어나 부산을 떠난다.

마늘을 많이 먹어야 하는 이유
마늘을 많이 먹어야 하는 이유는 함유하고 있어 살균효과가 뛰어나다. 특히 생마늘의 항균작용은 페니실린보다 강해 식중독을 예방하고 장내의 세균번식을 억제해 장의 기능을 좋게 한다.

청소년 음악 페스티벌 초대합니다
하는 횡수가 일주일일에 다섯 손가락을 채우기가 힘들어졌다. 가끔 딸아이의 얼굴을 마주할 때면 눈 밑에 커지는 다크서클과 창백해져가는 아이의 낯빛에서 어떻게 3년을 버틸지 걱정이 앞섰다.

미성년자 음주, 부모에게 책임 물어야
아르헨티나에서는 미성년자 자녀의 음주는 부모의 책임이라며 범칙금을 물리고 있다. 나이가 어린 자녀가 술을 마시도록 한 건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빗길 감속 운행으로 사고 위험 줄이자
어느 계절이든 간에 비가 갑작스럽게 내릴 경우에는 운행 중 빗물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Table with 2 columns: 光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website details.